

경우 1979년도 전국 좌고 평균치에 비해 더욱 낮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흉위와 좌고의 증가가 저조한 것은 건강 발육의 실질적인 면의 증가가 저조한 것을 의미 하므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연구 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여자중고등학생들의 식품영양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1981.

정문희 · 이명숙

미국의 플로리다주 보건국의 관계자들이 마련한 40문항의 식품지식에 관한 정오 ( True - False ) 검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25문항을 골라 우리나라, 여자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틀린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을 생활경험교육으로써 잘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한 바 총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여중 1년에서부터 여고3년에 이르기까지 각학년별로 서울의 1개교에서 3학년씩 농촌의 1개교에서 2학년씩을 양호교사가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조사에 임한 바 분석대상은 총 1,689명이었다.

조사기간은 1980. 7. 18~7. 19. 이었으며 조사된 자료는 전산화처리하였다.

1. 식품영양에 관한 25문항에 대해 여자중고등학생들이 평균 틀린 문항은 9.29문항으로 37.16% 이었다.

2. 학년이 높아질수록 식품영양에 관한 틀린 문항의 빈도는 점차 적어지고 있다. 여자중학생의 평균 틀린 문항은 25문항중 9.66문항(38.64%)이고 여자고등학생의 평균 틀린 문항은 25문항중 8.82문항(35.28%)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01).

3.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문항은 (1) 화학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86.7%), (2) 시금치에는 고농도의 비타민과 무기염류가 많다(82.8%), (3)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71.3%)였다.